

# 先語末 {-더-}와 斷絕의 樣相\*

任 洪 彬\*\*

## I. {-더-} 認識의 多樣性

本稿는 국어의 선어말 형태소의 하나인 {더}를 ‘斷絕’의 認識 樣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sup>1)</sup> 이를 기본 의미로 하여 몇 가지 상이한 통사적인 구조에 나타나는 {더}의 쓰임이나 그 통사 의미론적인 특성을 統一的으로 說明해 내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최근 {더} 문체의 深刻性이 학계 관심의 銳利한 초점이 된 것은 孫昊玟(1975), 徐正洙(1977)에 의하여 {더}의 의미와 기능 및 그 통사적인 제약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들 논의는, 前者가 {더}를 ‘누가(報告者) 과거에 어떤 사실을 지각했다’와 같은 上位文 事 은 遂行文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報告者와 過去 및 知覺의 세 의미 단위로 어휘해체한 것인 반면, 後者は {더}의 報告의인 機能에 역점을 둔 것이면서도 양자가 {더}를 단순히 回想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된다. 비록 孫昊玟(1975)에서 {더}를 계속해서 回想의 접미사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라도 {더}를 回想으로만 보아 온 종래의 태도에 根源的인 懷疑를 제기한 것이다. ‘누가 과거에 어떤 사실을 지각했다’와 같은 구조나 그 의미관련이 반드시 回想이 되는 것이라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또 반드시 報告行爲가 되는 것

\* 본고는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人文大 專任講師

1) 여기서 認識 樣相(epistemic modality)이란 어떤 命題의 實理値를 문제삼은 의미의 論理的인 인식 양상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태도를 문제삼는 개념으로 보다 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도 아니라는 점에 徐正洙(1977) 논의와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또 그 구조의 약점이 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실을 지각했음을 보고한다’와 같은 구조이어야만 報告의 遂行文임이 명백해진다. 知覺이 觀察·經驗·推論의 세 하위법주로 나뉜다는 논의도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법상 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 ‘觀察·經驗·推論’은 인간 의식활동의 거의 전 영역이기 때문이다. 同一主語 制約과 같은 통사적 현상에 대해서는 ‘觀察’의 의미특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나, ‘관찰’이라고 하여 문제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래 {더}를 回想이라고 했던 것과 얼마만한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더}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더}는 ‘報告’인가? 그러나 ‘報告’란 의미 가능이 ‘-더라’란 형식의 검토에서 얻어진 결론이란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sup>2)</sup> ‘더라’란 平叙形式이고 平叙文이라면 굳이 {더}란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報告’란 言語遂行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형식은 언어수행적 의미를 無標的으로 갖는 데 대하여 ‘-더라’는 ‘報告’의 의미를 有標的으로 갖는다고 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더}의 기능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金次均(1980), 柳東碩(1981)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작 실제의 報告文에는 ‘-더라’나 ‘-음디다’가 쓰일 수 없고, 또 ‘네가 누구더라?’와 같은 예에 보고의 의미가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sup>3)</sup>

申鉉淑(1980)에 의하면 ‘-더라’가 질문의 대답에 쓰이면 信憑性이 낮아진다는 것이었고, 김영희(1981)에 의하면 ‘-더라’란 回想作用에는 誠實性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李基東(1981)에선 {더}가 未完(imperfective)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樣相으로 보아서는 不確實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報告’의 의미라는 것과

2) 金次均(1980)에서는 ‘라’에 주목하고 있다.

3) 이 예는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것이다.

관련시키면 ‘-더라’는 무책임하고 불확실하고 신빙성이 낮은 ‘보고’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보고’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더}에 관한 논의가 回想說로 다시 回歸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金次均(1980), 김영희(1981), 柳東碩 (1981)에 의하여 ‘回想’이란 것이 다시 注目되게 된 것이 그것인데, 金次均 (1980)에서는 基準時點의 문제와 ‘새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의미특성이 좀더 정밀화되었고, 김영희(1981)에서는 回想文에 따르는 人稱制約 현상이 좀더 정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논의는回想이라는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더}의 核心的인 의미를回想이라고 하는 것은 ‘았-’이나 ‘았었-’을 회상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한 것이다.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을 생생하게 말하는 것이든 회미하게 말하는 것이든 회상이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崔鉉培 (1937:591, 606-17)에서 {더}를 回想時制 補助語幹이라고 했을 때에도 直觀的인 印象이 보다 크게 작용했으리란 것은 짐작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sup>4)</sup> {더}를 시제로 본 것도 語感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崔鉉培(1959)의 {더} 인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로 한다.

- (1) a. 아이가 오다—아이가 오더라.  
 b. 회상시제의 현재 : 움직임이 지난적에서 이적(現在)에 됨을 본 것을 도로 생각하는(回想하는) 것이니(p. 444).  
 c. 회상시제 : 말하는 이가 말하는 그 때점(時點)을 대중을 삼지 아니하고, 지난적에 그 일을 겪던 그 때점(時點)을 대중을 삼아서, 그 말에 들어오는 움직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니라(p. 433).

(1a)는 ‘오더라’란 형식을 ‘오다’란 형식과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다

---

4) {더}에 대한 한국인의 直觀이 대체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柳東碩 (1981)참조. 그러나, 이에도 분명 이유는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했을 뿐이다.

는 점에서 ‘우리말본’ 文法記述의 한 특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법은 金次均(1980)에서 ‘ $\phi$  : 더’와 같은 인식법으로 이어지고 있다.<sup>5)</sup> (1c)는 基準時點의 移動을 말하는 것으로, (1b)에서 ‘回想’이라는 변수만을 論外로 하면 (1b)는 (1c)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1b)의 회상시제 현재가 過去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때의 현재를 회상한다는 데 있다. (1b)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서 논리적인 명료성에 도달하려고 한 것이 나진석(1971:24)이다. 거기서 (1b)는 “지난적의 이적나아감을 도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으며, ‘回想’이란 흔적이나 정보에 의한 추론이 아닌 한, 경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기억에 존재하는 사실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지난적나아감으로 표현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1b)는 過去進行으로 이해된 것이다. “기억의 재생, 체험”(나진석 1971:26)이 바로 회상이므로 이를 다시 回想이라는 것으로 복귀시켜 놓은 것이 金次均(1980:85)이다. 나진석(1971:98)에 의하면 ‘-았더’의 {더}는 단순한 過去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진석(1971)의 “과거”는 바로回想을 뜻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孫昊致(1975), 安東煥(1980:79)에서도回想보다는 過去가 {더}의 本質的인 屬性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더} 認識의 다른 한 방법은 {더}를 基準時點의 移動과 관련시키는

- 5) 金次均(1980)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雰形態를 가정하고 그것에 거의 形態素의인 機能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순수히 그存在的 缺如로서의 영형태란 영형태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다른 것이다. 영형태란 어떤 형태소가 있고 그에 대한 변이형태로서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더}는  $\phi$ 에 대립한다고 보기보다는 {느}와 대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았던’의 {더}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진술로 ‘밥을 먹었는데 소식이 없다’에 대하여 ‘\*밥을 먹었던데 소식이 없다’의 非文性은 {더}의 인정제약과 관련이 있으며, ‘\*그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무슨 이야기나?’에 대한 ‘그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던데 무슨 이야기나?’의 成立性은 그대로 {더}의 단절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데’가 종속절에서 ‘-은 데’를 不許하고, ‘-는데’와 ‘-던데’만을 허용하는 이유는 불투명하다.

것이다. 이는 崔鉉培(1937:59)의 (1c)의인 논의를 源流로 하여 {더}를 회상이라고 보는 견해와 일반적으로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는 인식법이기도 하다. 金次均(1980), 高永根(1981), 柳東碩(1981)이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를 回想機能과 관련시키지 않고도 基準時點의 移動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 {더}를 “말하는 사람이 ‘더’ 앞에 쓰이는 문장의 상황을 확인한 때를 基準時”로 하게 하는 일종의 相對時制로 상정한 李翊燮(1908:371) 및 {더}의 본질을 ‘이때-이곳’과 대립하는 ‘그때-그곳’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한 李南淳(1981:27)이 그것이다.<sup>6)</sup> 이는 {더} 앞에도 ‘-았-, -았었-, -겠-’ 등과 같은 時制形態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중시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바로 知覺時이며 發話時 기준으로는 過去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를 過去로 보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아래와 같은 예에 있다.

- (2) a. 지금 밖에는 눈이 오더라.  
b. 어제 그 집에서 사람이 왔더라.  
c. 내일은 눈이 내리겠더라.
- (3) a. 조금 전에 밖에는 눈이 오더라.  
b. 어제 벌써 그 사람은 우리를 떠나겠더라.  
c. 내일 그 사람이 떠나더라.  
d. ?\*어제 밖에는 눈이 왔더라.

문제를 (2)와 같은 예에만 국한시키는 경우, {더} 앞에 오는 명제적 사실은 {더}가 나타낸다고 하는 基準時點에서 보아 (2a)가 현재, (2b)가 과거, (2c)가 미래(혹은 推定)인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3)과 같은 예들을 同一한 原理로 설명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3a)를 {더} 기준시로 하여 이해하여 “\*조금 전에 밖에는 눈이 온다”고 할 때 여기서 명백히 지적되지 못한

---

6) 이러한 견해의 일단은 孫昊致(1975:89)에서도 피력되고 있다.

것은 ‘조금 전’이 결코 현재시제와는 共起할 수 있는 성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3a)의 成立性이 전적으로 부인될 만큼 그것이 비문법적인 문장인 것은 아니다. 또 (2a)의 명제적 사실을 (3d)와 같이 {더} 기준의 ‘어제’로 바꿀 때, {더} 앞에 비록 ‘-았-’이 있다고 하더라도 (3d)는 기묘한 문장임에 틀림이 없다. 이 기묘성은 분명 (3d)의 ‘밖에는’이란 요소 때문에 생기고 있다. 이 요소가 (2a)와 (3d)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基準時點의 移動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 (3b)에서도 ‘어제’와 ‘-겠-’이 호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3c)와 같이 ‘내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미래표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더} 구성에 ‘지금’이 있다고 하여 ‘-았-’이 나타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a)의 ‘지금’ (2b)의 ‘어제’ (2c)의 ‘내일’ (3a)의 ‘조금전’이 모두 발화시 기준의 時稱語라는 사실도, {더}를 기준시점의 이동이라고 할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난관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 동안의 {더} 논의에서 나타난 {더} 認識의 多樣性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보이기로 한다.

- (4) a. {더}는 回憶이다.
- b. {더}는 報告이다.
- c. {더}는 過去나 過去進行을 나타낸다.
- d. {더}는 基準時點의 移動을 나타낸다.
- e. {더}는 ‘직접 경험한 것’이나 ‘몸소 살핀 것’ 혹은 ‘새로 알게 된 것’이나 知覺한 것을 나타낸다.

(4a-d)를 {더}의 보다 큰 기능과 관련된 논의들이라고 하면 (4e)는 위의 논의들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a-d)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 {더}의 기능으로 삼은 논의가 드물다는 것도 {더} 논의의 한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대부분은 (4a-d) 가운데 어느 하나와 (4e) 가운데 어느 하나를 共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더} 문제 해결의 열쇠는 (4a-d)와 같은 큰 範疇 區分에서보다는 (4e)와 같은

微細한 機能의 檢討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에 관한 논의가 (4e)의 檢討를 {더}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확대 精密化해 본 일이 드물다는 데 {더} 논의의 限界와 弱點이 있으며, 그렇다고 {더} 출현의 세부적인 制約條件만을 檢討한다고 하여 {더}에 관한 문제가 모두 消盡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더} 문제의 深刻性이 있다.

## II. {-더-} 認識의 周邊

국어의 {더}, 그것은 분명 한국인이면 누구나 대체로 그 정확한 用法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가 쓰여져야 할 정확한 文脈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有效適切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더} 認識에 있어서도 사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문제는 (4a-e)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그 동안 多角的으로 執拗한 追跡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追跡이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더} 의식을 원동력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이를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4a-e)는 어느 것이나 {더} 認識의 斷片으로서 {더}의 어떤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혀 無關한 사실들이 (4a-e)와 같이 어떠한 綜合도 불가능한 양상으로 따로따로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4a-e)를 모두 합하여 '{더}는 過去에 직접 경험하거나 몸소 살핀 것이나 새로 안 것이나 지각한 것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첫째, 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라는 단 하나의 형태소가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소박한 의문일 것이지만, 張奭鎮(1973), 孫昊致(1975) 등과 같

은, {더}에 대한 生成意味論의인 접근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물론, 한 형태소의 기능이 반드시 한 가지 機能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관형형 어미 ‘-은, -을’과 같이 冠形性과 時制性이 동시에 표현되는 일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두 가지 기능을 넘어서서 서너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소의 확인이란 原初的인 기능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설명 포기의 태도이거나 형태소 분석이란 차원에서 미분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거나 하다.

둘째,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더}의 쓰임 가운데는 (4a-e)를 모두 합하여도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더} 논의, 특히 ‘-더라’란 형식에 대한 논의에서 人稱制約이란 이름으로 불리운 현상이 그것인데, 이는 다음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세째로 문제되는 것은 {더}에 관한 지적이면서도 {더} 논의의 主流에서는 별로 注目을 받지 못하였거나 소홀하게 취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e)에 대한 설명에서 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나, 대체로는 그 重要性을 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더}가 中止·中斷·中絕 등 끊어집의 의미와 관련한다는 기능적 특성이 그것이다. 이는 특히 ‘-던’과 같은 관형형에서 두드러지는 의미인데, 그 동안의 {더} 논의에 있어 ‘-던’이란 형식은 형태소 분석에서부터 불행한 歷程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던’은 朴勝彬(1935:34-8)에서 ① “特殊한 意味를 含有한 一種의 過去를 表示하는 것”으로, ② “過去의 進行 又는 存續의 狀態를 表示하되 現在의 狀態와 違反(反對, 變更, 中絕)되는 觀念”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②의 ‘中絕觀念’이다. 이 ‘中絕觀念’은 鄭寅承(1956:38)에서 ‘-던’을 “하다가 그만둔 움직임으로 끝나는 꼴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 명백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李熙昇(1957:72)에서 “행동이 지나간 과거의 일인 동시에 [...]”

아직 미진한 것이 곧 미완이므로, 이것을 과거미완이라고 이른다”고 하였을 때에도 ‘미완’은 中絕觀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異議가 없는 것이다. 過去未完이 完了란 개념과 대립하여 過去進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南基心(1976=1978:40)에서도 ‘-던’은 “中斷法”이란 이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던’ 인식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나진석(1971)과 南基心(1976) 및 徐正洙(1979)에서인데, 나진석(1971)에서는 李熙昇(1957)의 ‘과거미완’에 대한 비판에서 ‘미완’의 의미를 제거해 버렸고, 南基心(1976) 徐正洙(1979)에서는 ‘-던’과 {더}와의 관련성을 끊어 버리게 되었다. 우선 前者の 논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5) a. 먹던 밥을 남에게 준다.  
b. 가던 길을 도중에서 돌아온다.
- (6) a. 어제 당신이 먹던 밥은 찰밥이었소?  
b. 그이는 아직 옛날 살던 집에 살고 있다.

(5a)의 ‘먹던 밥’ (5b)의 ‘가던 길’을 ‘過去未完’으로 본 것이 李熙昇(1957)이라면, 예의 ‘-던’이 (6a)와 (6b)에서는 未完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아 {더}를 過去進行 혹은 過去로 본 것이 나진석(1971)이다. (6)에 관한 한 나진석(1971)에서의 인식방법은 그렇게 逸脫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過去’라는 의미자질로 (6a, b)는 설명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5a, b)의 ‘未完’의 의미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던’ 문제가 또 한번의 파란을 맞이하게 된 것은 ‘-던’과 {더}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南基心(1976)과 徐正洙(1979)에서이다. 아래의 예를 통하여 이 논의를 검토하기로 하자.<sup>7)</sup>

7) 文例 (7) (8)은 {더}에 대한 既往의 논의, 南基心(1976), 徐正洙(1979) 및 朴亨連(1979)에서 가져온 것이다.

- (7) a. ?\*내가 춤을 추더라.  
 b. 내가 춤을 잘 추더라.  
 c. 나는 기쁘더라.  
 (8) a. 내가 입던 옷을 그에게 주었다.  
 b. 영국에서 살던 아들이 왔어요.  
 c. 집에 갔던 학생이 돌아왔다.

(7a)는 이른바 人稱制約 현상이라는 것을 보인다. 혼히 어떤 문장이 自己制御的인 現象을 기술하는 것일 때 그 문장의 주어로 1인칭이 쓰이면 그 成立性에 異常이 생긴다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8a)와 같은 관형절에서는 씻은 듯이 사라진다. 南基心(1976=1978:39-40)에서는 이러한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더}와 '-던'은 "同種의 것이 아니며 [...] '-던'을 '-더'와 '-ㄴ'으로 分析해야 할 根據는 發見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더}와 '-던'이 同種이 아니란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과 같은 뉴앙스로 '-던'은 {더}와 '-은'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뒤의 것은 결코 명백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른바 인칭제약의 적용여부가 곧 형태소 인식을 달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실제로 인칭제약은 (7b)에도 나타나지 않고 (7c)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7a)의 {더}와 (7b,c)의 {더}는 서로 다른 형태소인가? 이러한 극단의 인식법은 朴亨達(1978)에 나타나는 것으로 거기서는 (7a)와 (7c)의 {더}가 형태소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平叙文의 {더}와 冠形節의 {더}를 다른 형태소로 보는 것도 이러한 極端論의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이 극단론을 좀더 積極化하고 具體화한 것이 徐正洙(1979)이다.

'-던'은 (8a)에서와 같이 "비동일주어 제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8b)와 같이 "몸소살핌" 제약과도 무관하며, (8c)와 같이 피보고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더라'의 {더}와 '-던'의 {더}는 이미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양자를 동일한 {더}로 설명하려는 태도

는 止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몸소살핌" 제약은 애초 徐正洙 (1977:106)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제약은 아니었던 듯한데 (8b)에서는 지나치게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8c)에선 冠形形 '-던'과 敘述終 結形 '-더라'와의 차이점이 간과되고 있다. '-던'은 도무지 청자를 상 대로 하는 서술의 形式이 아닌 것이다. '-(었)더니'에 대한 논의에서도 (徐正洙 1978), "인칭 deixis적" 제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었)더니'의 {더}와 '-더라'의 {더}가 同一 形態素로 분석되었다. '내가 보았더니…'도 성립하므로 '-(었)더니'는 (8a) 적인 현상도 共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더}가 同一한 {더}일 것이라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소박한 것이라고 하여도 형태소가 서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方式에 비추어 볼 때 근거는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7b)에는 '잘'이란 성분이 있고 (7c)에는 '기쁘다'와 같은 內的 狀態를 서술하는 用言이 있으므로 이들이 人稱制約의 해소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8)의 '-던'도 우선은 '-ㄴ'이 冠形作用을 하는 것이므로 "-던"을 {더}와 '-ㄴ'으로 분석하는 것은 범상한 常識論이 아닐 수 없다.

'-던'이 {더}와 '-은'의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뒤의 일에 속한다.<sup>8)</sup> 그리고 여기서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은 徐正洙 (1979)에 있어서의 '-던' 인식은 '-던' 문제의 역사에 있어서 그 類例가 없을 만큼 特異한 것이란 점이다. 이제까지의 '-던' 인식은 어떻든 '-던'에서 中絕觀念 혹은 中斷의 意味를 추출해 내던 것이었는데, 徐正洙 (1979)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흔적이 사라지고 '-던'의 일반적인 특성을 "持續"인 것으로 파악해 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던' 인식은 어느 일면 최근에 이들수록 中絕觀念에서는 멀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8) '-던'을 {더}에 '-은'이 결합한 형식으로 분석한 것은 申鉉澈(1981) 李基東(1981)에서도 보인다. '-은'을 [一未來性]으로 '현실에 주어진 것'을 나타낸다고 할 때, {더} {느}와 '-은'의 연결은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拙稿(1982) 참조.

있다<sup>9)</sup>.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밝은 길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로서는 中絕觀念이 명확히 부각되는 이곳이야말로 {더}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던’이 아니라 {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中絕觀念은 간혹 그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더} 인식의 周邊으로서만 中斷의 의미가 원용되고 있을 뿐이다. 가령 許雄(1975:900)에서 {더} 성격의 일면으로 “현실과는 이미 관련을 끊게 된 일”을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도 中斷의 의미는 한 명확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金次均(1980)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도, 김영희(1981), 柳東碩(1981)에서 “無意圖”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도 中斷의 의미는 {더}와 不可分離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李基東(1981)에서의 ‘두 觀點(platform)’ 申鉉淑(1981)에서의 ‘거리’란 개념도 이와 관련된다.

우리는 {더}가 보이는 이 中絕觀念, 中斷의 意味를 ‘斷絕’이라 부르고, 이를 토대로 {더}가 나타내 보이는 일련의 현상을 어디까지 설명해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I. {-더-}와 斷絕

{더} 문제의 核心은 (7)과 같은 이론 바 人稱制約 현상이란 것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다. 이에 관한 문제처럼 많은 假說과 說明原理가 제시된 현상도 드물기 때문이다. 다른 예들과 함께 그 해석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9) {더}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金次均(1980:98-9)의 ‘아랑곳 않음’, 李基東(1981:94-5)의 ‘imperfective’의 개념은 中絕觀念의 다른 모습들이라고 여겨진다. 金次均(1980:99)에서 ‘중단의 의미’를 “주절의 내용 또는 언어 윗적인 현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 것도 {더} 문제의 要를 얻은 것이다.

- (9) a. ?\*내가 어제 도둑을 잡더라.  
     b. {네, 그}가 어제 도둑을 잡더라.  
     c. \*나는 어제 득감을 암더라.  
     d. ?\*내가 어제 난생 처음 도둑을 잡더라.
- (10) a. 나만 담배를 피우더라.  
     b. 내가 혼자 담배를 피우더라.  
     c. 내가 얼떨결에 담배를 끄더라.  
     d. 내가 꿈에도 담배를 피우더라.
- (11) a. 나는 마음이 즐겁더라.  
     b. {\*너, \*그}는 마음이 즐겁더라.
- (12) a. ?\*너는 참 기분이 좋다.  
     b. 너는 참 기분이 좋더라.
- (13) a. 그 노래는 내 귀에 익더라.  
     b. \*그 노래는 네 귀에 익더라.  
     c. \*그 노래는 내가 귀에 익더라.

(9a)의 奇妙性에 대하여 우리는 앞에서 自己制御性 [self-controllable]과 같은 것을 상정하였다. 이는 김영희(1981:60)에 제시된 “통제” (control)라는 의미특성과 동일한 것으로, 자료를 (7a)나 (9a, b)와 같은 예에만 국한시킨다면 이러한 자질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9a)가 完全한 非文은 아니며, ‘내가’나 ‘어제’나 ‘도둑을’과 같은 성분에 強勢가 놓이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제라는 자질로써는 (9c)와 같은 예조차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김영희(1981:58)에서는 (9c)의 명제 내용을 中立文으로 보고 中立文은 非意圖와 統制를 그 의미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9c)의 명제 내용에 非意圖의인 統制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더구나, 김영희(1981)에서 “참여자 서술 조건”이나 “명제 내용 조건”으로써도 끝내 설명 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10b)와 같은 예이다. (10a)도 마찬가지인데, (10a, b)의 명제 내용에 統制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또, 비록 그 명제 내용이 수용적이란 단서가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11a, b)이다. (11a, b)는 일종의 知覺行爲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각동사 문장들이 현재 시제일 때는 “참여자 서술 조건”에 의하여 話者와 知覺者가同一指示的 즉 (11a, b)에서 주어가 일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1a, b)가 저각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가령 그러한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奇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또, 우리는 왜 (11a, b)만이 저각행위가 되고 (9a, b)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없다. {더}를 ‘저각하다’로 해석하여 보다 설명이 잘 되는 예는 (11a, b)라기보다는 (9a, b)이기 때문이다. (11a, b)는 {더}를 제외한 명제 내용만이 저각행위이므로 (9a, b)와는 구별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11a, b)의 명제 내용 자체가 저각행위라고 할 때 여기에 다시 ‘저각하다’란 서술어로 이해된 {더}가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김영희(1981)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은 (9a, b)를 설명하는 원리와 (11a, b)를 설명하는 원리가 그만큼 異質의이어도 좋은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難點은, 설명방법은 완전히 혹은 다소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의 의미를 “witness”(梁演錫: 1972)나 “observe”(張龍鎮 1973, 孫昊玟 1975)와 관련시키는 모든 논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自己制御의 行動을 ‘목격했다’거나 ‘관찰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9a)의 奇妙性을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11a)의 해명에는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마음이 즐거움을 관찰했다”고 하는 관찰이란 이미 범상한 의미의 관찰은 아니며, 문장구조상으로는 “\*나는 내가 마음이 즐겁다고 관찰했다”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內包文의 主語가 上位文의 主語와同一指示의이어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10)과 같은 예에는 “客觀化”와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孫昊玟 1975:101) 같은 원리가 (11a)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11b,c)의 奇妙性을 단순히 ‘느낌형용사’ 혹은 ‘心理動詞’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의 人稱制約이라는 것에서만 구하려는 것 (南基心 1972=1978:31, 張奭鎮 1973:52-53, 金次均 1981:91-2)도 반드시 {더} 문제의 正錯을 일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선은 ‘心理動詞’라는 것이 어떤 意味를 가지는 동사들의 自然部類가 되기 어렵다는 데 그 설명 원리상의 난점이 있으며, 둘째는 ‘心理動詞’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더}가 없을 때에는 기묘하다가도 {더}가 나타날 때에는 기묘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난점은 가령 (13)의 ‘익다’와 같은 예에서 성립한다. 이는 종래 전혀 ‘心理動詞’로는 다루어진 일이 없는 것인데 ‘귀에 익다’라고 하면 心理動詞의이며, ‘마음에 들다’도 ‘들다’ 자체로는 결코 심리동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음에 들다’는 그렇지 않다. 金次均(1981:91)의 ‘고프다, 싶다’도 심리동사로는 새로운 목록이다. 김영희(1981:55)의 인식은 이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 현재시제의 ‘깨닫다’ 등이 같은 제약에 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文脈으로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등도 심리동사적이며, 통사적인 구성에 따라서는 ‘나는 그가 오늘 온다’와 같은 예도 評價構文인데, 이런 모든 동사들을 총칭하여 ‘心理動詞’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둘째 난점은 가령 (12a)와 같은 예에서 찾아진다. (12a)가 ‘너는 참 내 기분에 좋다’란 의미가 아니라면, ‘-구나’와 같은 감탄문 형식을 갖지 않는 (12a) 자체만으로는 아무래도 奇妙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12a)를 {더} 구성으로 바꾼 (12b)는 기묘하지 않다. 그것은 (12a)를 ‘-구나’ 형식으로 바꾸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과 同軌의 일로 여겨진다. 다른 예는 가령 金次均(1985:91-2)에서 지적된 일련의 현상에서 찾아진다.

- (김55) a. {\*그는, \*너는} 막걸리가 좋았다.  
 b. {\*그는, \*너는} 어제 밤에 추웠다.  
 c. {\*그는, \*너는} 배가 고팠다.  
 d. {\*그는, \*너는} 집에 가고 싶었다.

(김55)는 ‘X는 Y가 V<sub>ps</sub>-더라’란 구성을 있어 X의 자리에 2·3인칭이 쓰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해명으로 {더} 구성이 아니더라도 (김55)는 非文法的인 文章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13b, c)가 기묘한 것은 결코 {더}의 책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55)를 완전히 非文法的인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55) 자체에 {더}가 添加될 때에는 (김55)에서 느껴진 던 기묘성이 아주 輕減되거나 혹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 (14) a. ?{그, 너}는 막걸리가 좋았더라.  
 b. ?{그, 너}는 어젯밤에 추웠더라.  
 c. ?{그, 너}는 배가 고팠더라.  
 d. ?{그, 너}는 집에 가고 싶었더라.

필자에게는 이들 예의 성립성은 거의 의심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나는 기쁘더라’와 같은 예를 ‘?\*나는 기뻤더라’와 같이 바꿀 때 그 文法性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方向은 반대이나 그 설명원리는 같은 것이다(p. 58 참조).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 그것은 (13a-c)의 成立性이나 非成立性이 단순히 ‘心理動詞’文의 成立性이나 非成立性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더}가 가지는 意味特性 때문에 (김55)와 같은 예들도 (14)와 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를 ‘관찰하다’나 ‘목격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서는 (9)와 (11)과 같은 예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더}가 ‘관찰’이나 ‘목격’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더}에 관한 모든 현상을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金次均(1980)의 ‘새로 알게 된 것’이라는 자질로써는 보다 포괄적인 說明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는 동생을 찾더라’와 같은 예에 대하여 “말할이가 과거 어느 때 새로 알게 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월이다. 동생을 찾는 줄 모르고 동생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차준 1980:92)이라고 했을 때 그는 거의 {더}의 本質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안다’는 것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못하였다는 데 金次均(1980) 논의의 한계가 있고, 특히 ‘-던’을 ‘새로 알게 된 것’과는 무관하게 설명한 것이 그 논의의 약점이다. 가령 (9d)에서 ‘내’가 ‘새로 알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물음이 어떻게 답변될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하다. 金次均(1980)의 논리로써는 세계에 새로운 것이 주어졌을 때 이를 아는 것과, 세계에 새로운 것은 없더라도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성은 ‘안다’고 하는 認識作用을 나타내는 말로 {더}를 특징짓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우리는 {더} 문제의 관건은 認識作用에보다는 意識與否에 있다는 전제 아래 金次均(1980)에서 아무리 ‘안다’는 말을 ‘의식’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구별하여 쓰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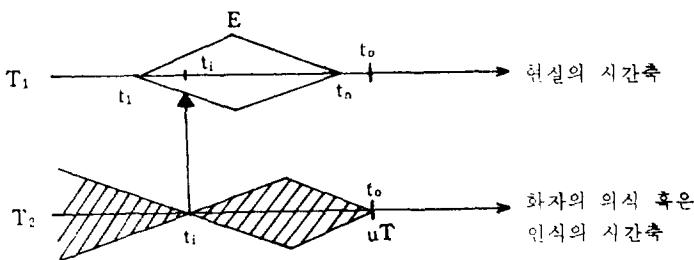
(13a-c)와 같은 예와 더불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되어야 할 것은 (9)나 (11)과 같은 예에 대한 해명에 있어 ‘同一主語制約’이니 ‘非同一主語制約’이니 하는 술어를 쓰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11)과 같은 예에서 정확하게 그 주어가 무엇인가를 따지려는 노력도 그렇게 의미있는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13a, b)에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성분은 전혀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의식이 ‘내’ 의식인지 ‘남’의 의식인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문장의 어느 성분인가는 必須的인 관련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더}가 人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의 의미특성을 잠정적으로 일단 다음과 같이 상정하기로 한다.

(15) {더}의 의미특성 : {더}는 과거 어느 時點까지의 意識의 斷絕을 前提로 하여 어떤 事件이나 狀態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그에 대한 意識이 持續되지 않고 斷絕됨을 뜻한다.

이는 종래의 {더} 논의가 과거의 어느 時點에 이루어진 인식이나 관찰 또는 經驗이라는 것에만 지나치게 執著해 온 것을 반성한 것으로 (15)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인식, 그 이전이나 이 후에 의식의 단절이나 그 非持續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16)과 같다.

(16)



여기서  $T_1$ 은 현실의 時間軸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화자의 의식이나 인식에 관계없이 平均的으로 흘러가는 物理的이며, 自然的인 시간이다. 이에 대해서  $T_2$ 는 화자의 인식이나 의식에 있어서의 시간으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T_2$ 는  $T_1$ 에 대하여 平行의이다. 특히 發話時(UT)인  $t_o$ 가 언제나  $T_1$ 에 있어서의  $t_o$  즉 현재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같다. 그러나, 時間이 시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그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므로  $T_1$ 상의  $t_o$ 와  $T_2$ 의  $t_o$ 와의 一致란 그렇게 엄밀한 것이 아니다.  $T_1$ 상의  $t_o$ 는  $T_2$ 상의  $t_o$ 에 있는 話者の 認識 樣相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T_1$ 상에 E로 표시된 마름

모는  $t_1$ 에서 시작되어  $t_n$ 에서 종결되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 사건이 아니라 狀態라면  $t_1$ 에서 시작하는 起部(onset)와  $t_n$ 에서 끝나는 結部(coda) 사이가 평균적이어서 마름모꼴은 이에 적합치 않을 것이다. 狀態도 時幅을 가지는 것이므로 편의상 모두 E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過程(process)도 E에 포함된다.  $T_2$ 에 있는 陰影部는 話者意識의 斷絕이나 그 非持續을 나타내는 것이다. (16) 전체는 話者가 發話時(UT)인  $t_0$  보다 앞선 時點  $t_1$ 에서  $T_1$ 상에서 전개된 事件 E를 현실의 시간  $t_1$ 에서 문득 혹은 갑자기 예상밖으로 인식했다가  $t_1$ 에서  $t_0$ 에 이르는 일정한 意識의 간격 뒤에  $t_1$ 에서 인식한 사건 E를  $t_0$ 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16)은 그 전체로서 아래의 (17a)와 같은 예에 해당하는 사건의 인식과 의식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았-’ 구성인 (17b)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 (17) a. 어제는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 b. 어제는 영희가 학교에 갔다.

(17a)의 ‘어제’는 (16)에서 發話時인  $t_0$ 를 기준으로 하여 ‘영희가 학교에 간’ 사건 E를 관찰한 시각 즉  $t_1$ 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사건 E는  $t_1$ 時點에 있어서 (17a)의 話者가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로  $T_2$ 상의  $t_1$ 에 있는 話者에게는 의식 밖에 있었던 사실이다.  $T_2$ 에서  $t_1$ 까지에 이르는 陰影은 이를 나타낸다.  $T_2$ 상의 時點  $t_1$ 에 있어서 관찰자가  $T_1$ 의 時點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얼마만한 時間동안 관찰했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인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는 책가방을 가지고 자기 집앞을 지나가는 것만 보았을 수도 있고, ‘영희’가 가방을 챙기는 것만을 보았을 수도 있고, 起部  $t_1$ 에서 시작하여 結部  $t_n$ 에 이르기 以前까지의 거의 전과정을 관찰한 것일 수도 있다.<sup>10)</sup> (17a)와

---

10) 한 사건을 起部(onset)와 核部(nucleus), 結部(coda)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Freed(1979:30-40) 참조.

같은 예에서 의미의 핵심이 되는 것은 (16)의 현실의 시간축  $T_1$ 에서 사건 E가 結部  $t_n$ 에 이르기 전에  $T_2$ 상의  $t_i$ 에서의 관찰이 끝나고 의식의 단절이나 간격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인식의 要體가 (16)의  $T_2$ 에서  $t_i$ 에 선행하는 意識의 斷絕에보다  $t_i$ 에 후행하는 의식의 단절에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더}의 쓰임이  $T_2$ 에서  $t_i$ 에 선행하는 의식의 단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면 ‘문득, 갑자기, 예상 밖에, 의외로’ 일어난 사건 모두에 {더}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아무리 奇想天外의 것이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새로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기술하는 문장에 {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사건들 모두가 ‘새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와 같은 것이다.

- (18) a. 예상 밖의 일이 터졌다.  
 b. 난데없이 서울 바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c. 의외로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

이들 예에 아무리 그 사건의 새로움이나 그에 대한 인식의 새로움을 알리는 부사어가 나타나더라도 {더}의 出現은 요구되지 않는다. 의식의 時間軸  $T_2$ 상의  $t_i$ 에서  $t_0$ 에 이르는 의식의 단절이 전제될 때에만 {더}가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의 단절만을 제외하면 (17a)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관찰을 (17b)로도 기술할 수 있다. ‘-았-’을 사건이나 행동의 完了만으로 해석하려고 하여서는(南基心 1972=1978:8-12), (17b)의 이러한 用法은 설명되지 않는다. (17b)도  $T_2$ 의  $t_i$ 에서 사건 E의 어느 부분만을 관찰하고서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희’가 가방을 메고 문앞을 지나가는 것만을 본 뒤에도 (17b)와 같은 언급은 가능하다. 그것이 (16)의  $T_1$ 의 時點  $t_i$ 에 있어서의 관찰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17a)와 (17b)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가장 쉬운 대답의 하나는 (17a)에는  $t_i$ 와  $t_0$  사이

의 의식의 단절이 전제되는데 (17b)에서는 그러한 단절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이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또 (17a)와 (17b)를 순수히 ‘-았-’과 {더}만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도 올바른 認識法이라 하기 어렵다. {더} 앞에는 다시 ‘-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a)와 (17b)의 가장 중요한 차이, 그것은 (17a)의 관찰시점  $t_s$ 는 사건 E의 結部  $t_e$  뒤에 놓일 수 없는 데 대하여 (17b)의 관찰시점  $t_s$ 는 E 뒤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17b)의 관찰시점이  $t_s$ 보다 앞에 오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리적인 차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았-’은 사건 E의 全體性에 대한 認識을 전제로 하여 쓰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았-’이 사건의 完了에 대하여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았-’은 사건의 완료에 대해서 쓰인다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쓰이는 것이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았-’은 사건 E의 전체성에 대한 認識의 終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러면서 그 이후 의식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17a)의 {더}는 사건 E의 結部  $t_e$ 를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을 언제나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더} 앞에 ‘-았-’이 선행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또 왜 (17a)가 過去進行의 의미를 띠고 있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사건의 종결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의식의 단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았더-’나 ‘-았었더-’에 대한 설명원리도 {더}가 가지는 의미특성에 대한 이해에 충실하다면 결코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11) 이것이 정확하게 Comrie(1976:16)의 “perfective”的인 “perfective”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 많다. “perfective”에는 時間的인 境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대하여 ‘-았-’에는 인식방법이 보다 중요한 관건인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 (19) a. 어제는 영화가 학교에 갔더라.  
 b. 어제는 영화가 학교에 갔었더라.

(19a, b)가 직접 경험에는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더} 논의에서는 명확하게 지적되지 못하였다. 사건 자체를 직접 관찰하고는 (19a, b)와 같이 쓸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은 언제나 痕跡의 확인을 통한 과거 사실의 기술에만 쓰인다. 여기에 “몸소살핌”이 적용된다는 것은 정확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 (19a)가 직접 경험을 표현하지 못하고 흔적 확인에 의한 간접경험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았-’이 사건의 終結을 뜻하고 {더}가 그 뒤에 연결되었다는 단순논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19a)가 ‘-았-’의 논리와 {더}의 논리로 表現可能한 세계의 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이 종료된 후의 관찰이라면 ‘-았-’의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의식의 단절이 이어진 것이라고 하면 {더}의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다. 時點  $t_1$ 에도  $t_1$ 에서  $t_i$ 까지 전개된 사건의 흔적은 남아 있게 마련인 것이다.

(19b)는 다시 ‘-았었-’의 문제를 제기한다. ‘-았었-’을 분석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를 서로 다른 두 형태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것이나 凡常한 論理는 아니다. 우리는 이를 과거의 ‘-았-’이 두 번 연결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sup>12)</sup> 여기서도 사건 자체가 두 번 과거가 되었다든지 두 번 完了가 되었다든지 하는 논의는 배척한다. 왜냐하면, ‘-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의 종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았었-’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그대로 두번 적용된다. ‘-았었-’은 사건의 전체성에 대한 인식의 종결에 대한 또 한 번의 인식의 종결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았었-’이 再確認을 나타내는 것임을 뜻한다. 사건 자체가 어떠한 것이건 그에 대

12) 여기서 우리가 ‘-었었-’을 ‘-았었-’이라고 적는 것은 두 ‘-었-’이 나타나는 위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았었-’이 두 다른 형태소의 결합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한 再確認이면 ‘-았었-’이 쓰인다. ‘보았었다, 부지런했었다’와 같은 예에 잘 성립하는 것이 이것이다. 再確認이 필요한 이유는 제 1 차적인 사건의 인식과 제 2 차적인 사건의 인식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 介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흔히 제 1 차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 뒤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음을 전제로 한다. ‘갔었다’가 흔히 ‘갔다가 왔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再確認이 반드시 그러한 사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흔히 그럴 뿐이며 의식의 단절로 충분하다. 이는 사건의 “斷續”이 아니라 의식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南基心(1972, 1978)에서의 논의와 類似하면서도 다르다.

그렇다면, {더}에 포함되는 의식의 단절과 ‘-았었-’에 포함되는 의식의 단절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이 의식의 단절인 한에 있어서 둘의 사이에 눈에 띄게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듯이 보인다. 단지 斷絕이 介入하는 時域만이 다를 뿐이다. ‘-았었’은 의식의 단절이 사건의 전체 성에 대한 제 1 차적인 인식의 종결과 다시 그에 대한 제 2 차적인 인식의 종결이 행하여지는 時點 사이의 時域에 놓이며, {더}에 있어서는 主節에 쓰일 경우 언제나 관찰시와 발화시 사이에 그 의식의 단절이 놓인다. 따라서, (19b)의 ‘-았었더-’는 동일한 논리가 같은 순서로 적용된다. (19b)는 어떤 사건 E에 대한 재확인 뒤에 의식의 단절이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19b)가 왜 간접확인에만 쓰이는가 하는 이유는 (19a)에 대한 해명과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았-’에 의한 사건의 인식 뒤에는 {더}에 의한 의식의 단절이 놓일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찍힌다. 가령, 왜 ‘-았더었더-’와 같은 형태소 연결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았었-’ 사이에는 이미 ‘-았었-’ 자체의 논리에 의하여 의식의 단절이 介入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단절이 있는데 또 다른 단절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15)를 다시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0) {더}의 의미특성 : {더}는 觀察時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認識이 이루어진 이후 發話時(혹은 主節 事件時) 前까지 그 사건에 대한 意識이 斷絕됨을 나타낸다.

(20)이 (15)보다는 훨씬 단순해진 것이나 (20)은 관찰시 이전까지의 의식의 단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15)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더}가 나타내는 의식의 단절은 관찰시에서 발화시 전까지의 부분이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17a)와 (19a, b)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관찰시 전까지의 단절은 결코 중요한 관련성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16)에서  $T_2$ 의  $t_i$ 에 선행하는 의식의 단절은 필요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것을 배경으로 설명해야 할 예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보다는 (15)를 택한다고 하면 그만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파악이라는 점에서 (15)보다는 (20)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찰시 선행 단절은 중요한 관련성이 되지 못하는데, (15) 대신 (20)을 택하면 그러한 이유를 일일히 설명해야 하는 과중한 부단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利點이 있다.

(20)에서 (15)에 이르는 방법, 그것은 (16)의  $T_2$ 에서  $t_i$ 에 선행하는 隱影部를  $t_i$ 에서  $t_0$ 에 이르는 隱影部의 反射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의식이 단절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사건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16)의  $T_2$ 에서  $t_i$  선행 음영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만 {더}의 기본의미에 관찰시 선행 단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斷絕이 {더}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또, (20)에는 (15)와는 달리 의식의 단절에 대한 上限線으로 발화시 외에 主節 事件時를 부가하였다. 관형절이나 종속절에서는 문맥에 따라 그 상한선이 發話時 外에 주절 사

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더}의 의미를 斷絕로 보고 대체로 主節에 나타나는 {더}에 단절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의문문의 경우는 달리 특기할 것이 없다. 기타 註 14 참조). 그 밖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음에서 살펴기로 한다. 主節에서의 人稱制約 현상도 우리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IV. ‘斷絕’의 說明力

##### A. {더} 認識에 대한 說明力

{더}를 意識의 斷絕로 특징지을 때 이에 의한 설명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에 대한 종래의 假說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더}를 回想의 형태로 보는 것이다. {더}를 回想이라고 보는 것이 論證된 견해가 아니라 한국인의 直觀에 의거한 印象의 견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왜 {더}에서回想이란 느낌을 보다 강하게 받고 있느냐 하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印象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發話場面의 話者가 (16)에서 상정된 관찰시에서 발화 시 전까지 이어지는 의식의 단절을 뛰어넘는 노력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경험한 것을 잊었다가 이를 되살리는 “記憶의 再生”과 같은效果가 {더}에 있다고 하는 지적(나진석 1971 : 26-27)은 정확하게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단절이 먼저이지 회상이 먼저는 아니다. 단순히 過去의 일을 기술하는 것도回想이라고 한다면, {더}를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기능의 일면이지 그 전부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왜 {더}에 觀察이나 目擊의 의미를 부여해 왔는가도 (16)에서 분명해진다. 그것은 (16)에서 {더}가 사건 E의 全體性에 대한 認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E에서 結部 t<sub>n</sub>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쓰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더}가 觀察時에 있어서의 사건의 斷面에 대한 인식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리고 ‘觀察’이나 ‘目擊’이란 단어가 쓰이는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관찰이나 목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더}로 써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데 이러한見解의 난점이 있다 ‘-았더-’로 써는 어떤가? 그러나, ‘-았더-’로서는 사건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목격을 나타낼 수 없다. ‘-았더-’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더}에 의한 표현이 왜 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점도 {더}가 사건의 단면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하는 바로 그 기능적 특성에서 찾아진다. 사건의 단면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인 관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事件의 全體性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觀念的인 것이다. 이른바 心理動詞, 主觀動詞文에 대하여 ‘-았-’이 연결될 때 그 奇妙性의 정도가 달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21) a. 나는 네가 좋다.  
b. ?\*너는 그가 좋다.  
c. ?\*그는 네가 좋다.
- (22) a. 나는 네가 좋았다.  
b. ?너는 그가 좋았다.  
c. ?그는 네가 좋았다.

(21b, c)보다는 (22b, c)의 成立性이 보다 나아진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았-’이 全體性에 대한 了解를 나타낸다고 할 때 분명 (22b, c)는 (21b, c)보다는 나은 문장인 것이다. 全體性에 대한 了解란 다른 개체의 내면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더}는 全體性에 대한 了解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만 관찰시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관찰만을 나타낸다. 觀念이 아니라 ‘생생함’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것은 또 왜 {더}가 사건을 進行的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더}는 斷面 認識으로, 전체적인 了解가 아니라 結部를 제외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더} 표현에 왜 無責任性이 깃들고, {더}에 의한 情報傳達에 왜 信憑性이 적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의식의 단절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것은 回想行爲가 본래 무책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의 단절이 그만큼 그 문제나 사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기 事件에 대한 全體的인 了解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보전달이니 信憑性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문제는 意識의 斷絕을 나타낸다고 하는 {더}가 왜 혼히 過去의 일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讓步나 假想構成에 있어서는 {더}가 반드시 과거에 대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가 기술하는 사건은 혼히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0)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더}가 觀察時와 發話時 사이의 의식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주어진 事件에 대한 단절이란 원리적으로 過去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관찰은 가능한 것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래의 관찰은 假想이 아닌 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화 당시 현재의 관찰이다. 이 때의 觀察은 원리적으로 사건의 결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성격의 어느 일면과 합치할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더} 성격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발화 현재의 관찰에 있어서는 의식의 단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가 직접성, 現場性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다. 가령,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눈이 오더라’와 같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에는 ‘눈이 온다’나 ‘눈이 오는구나, 눈이 오네, 눈이 옵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 定動詞 구성인 한 대체로 {느}가 나타남을 특징으로 한다. {더}와 {느}는 事件의 結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관찰이란 점에선 그 성격이 공통되나, {더}와는 달리 {느}에는 의식의 단절이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더}와 {느}는同一한 구성을에는 쓰일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의식의 단절이라는 점

에 있어 {더}와 {느}는 相互排他的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던’을 ‘-더+느+은’과 같이 분석하는 것(金次均, 1981:60, 95)은 虛構이며 원리적으로 不可能한 것임을 의미한다.

### B. 人稱制約과 {더}

{더} 구성에 나타나는 人稱制約에 대해서는 우리가 (9)~(13)의 예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 밖에 ‘-던’이나 讓步 및 假想子성에는 좀처럼 그러한 制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간혹 ‘-던’이 中斷을 뜻하는 이유가 해명되어야 한다. 우선, (9)~(13) 가운데 편의상 필요한 부분만 번호를 달리하여 여기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 (23) a. ?\*내가 어제 도둑을 잡더라.  
b. {네, 그}가 어제 도둑을 잡더라.
- (24) a. 나만 담배를 피우더라.  
b. 내가 혼자 담배를 피우더라.  
c. 내가 열말결에 담배를 끄더라.  
d. 내가 꿈에도 담배를 피우더라.
- (25) a. 나는 아울이 즐겁더라.  
b. {\*네, \*그}는 마음이 즐겁더라.
- (26) a. 그 노래는 내 귀에 익더라.  
b. \*그 노래는 네 귀에 익더라.  
c. \*그 노래는 내가 귀에 익더라.

(23a)는 話者인 ‘내’가 自己制禦的 行動으로 어제 한 일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분명 기묘한 문장이다. 이 기묘성은 자기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기 의식의 단절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이 행동을 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자신이 일으킨 自己制禦的인 行動이란 행동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행동 중이나 이후에도 쉽사리 자기 의식에서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다. 단지, 그것이 어렵다는 것뿐이지 不可能하다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3a)가 ‘나’로서는

전혀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일을 기술하거나 夢遊病的으로 행해진 일을 기술할 때에는 성립하는데 그 경우 비록 행동은 기묘할지 몰라도 그 표현은 결코 기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식과 자기 행동이 분리될 때이다. 자기 행동의 “客觀化”가 가능해지는 것도 이 때인데(孫昊玗, 1975) 이에 대한 인식이 深化되지 못했다는 것이 흥이다. 이에 대해서 (23b)에는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행동이고, 의식이 단절되는 것은 ‘나’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자기 의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24)의 경우에는 奇妙性이 생기지 않는다. (24a)에서는 ‘만’이, (24b)에서는 ‘혼자’가, (24c)에서는 ‘얼떨결에’가, (24d)에서는 ‘꿈에’가 (23a)의 기묘성을 해소하고 있다. (23a)의 어느 성분에 強勢가 놓일 때에도 그 效果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요소는 대체로 狀況的 意味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의식이나 자기 행동과는 다른 세계의 일을 문제삼는 것이다. (24a, b)가 의도적으로 ‘혼자’ 담배를 피운 것이라면 (23a)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묘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혼자’라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自己制禦性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에 있어 그것은 다른 인식 사실, 가령 (23b)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자기 행동 자체는 자기 의식과 同行하는 것이나, 그 상황적 의미는 자기 의식과는 異質的인 것이다. (24c)의 ‘얼떨결에’는 자기 의식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며, (24d)의 ‘꿈에’도 그러한 영역을 보이는 것이다.

(24)와 같은 예들에 있어 관찰시와 발화시 사이에 介在하는 의식의 단절이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인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역시 주변적인 데서 오는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 (24)가 비록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하여도 그것은 적어도 자기에 관한 일이므로 자기에 관한 인식이 쉽게는 자기 의식에서 분리되기 어렵다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에 강하게牽引되고 있는 것이다.

(23b) (24)와 같은 예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찰시 이전의 의식의 단

절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지만, {더}의 核心的인 機能이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反射的 陰影部로 이해된 것이다. 다만, 자기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이 주변적인 요인이 되어 관찰시 이후의 의식의 단절보다 그 이전의 단절이 두드러지고 있을 뿐이다.

(23) (24)와는 달리 (25)는 어느 예나 의식 내부의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그것은 感情移入에 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관련 당사자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25b)가 기묘한 것은 (21b, c)가 기묘한 것과 마찬가지로 非當事者가 當事者의 感情이나 情緒를 표현하고 있는 데서 온 것이다. (22)나 (14)의 方法에 의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정에 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26b)의 기묘성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며, (26c)는 그것이 비록 ‘나’에 속하는 일이지만 ‘내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의식 내용에 대한 일을 암암리에 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묘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25a) (26a)가 (23a)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25a) (26a)와 같은 의식 내부의 현상은 (23a)와 같이 충분히 自己制禦의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감정이나 情緒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질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면서도 자기 의식의 적절적인 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즐겁다’고 느끼는 것과는 실제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다. 감정이나 정서는 그만큼 狀況依存性을 강하게 갖는다고도 할 수 있고 의식 내부의 현상에 있어 오히려 自己意識과의 분리가 그만큼 쉽게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24c)의 ‘얼떨결에’가 가지는 의미내용과 類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는 의식 내부의 현상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뒤에 곧 그에 대한 의식의 단절이 이어지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이다. 한 순간의 느낌은 곧 다른 느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느낌에 대한 의식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a) (26a)가 話者 즉 ‘나’의 의식내부의 일을 문제삼으면서도 {더}에 의한 의식의 단절을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7) a. 그는 10년 전에 죽었다.  
 b. ?\*그는 10년 전에 죽더라.  
 c. 배살까지 살겠다고 큰소리 친 그가 10년 전에 죽더라.
- (28) a. ?\*10년 전 나는 마음이 즐겁더라.  
 b. ?그를 처음 만난 10년 전에도 나는 마음이 즐겁더라.

(27) (28)은 {더}가 전제로 하는 의식의 단절이라는 時間幅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27a)는 단순한 過去  
 의 事件으로서 그것이 發話時인 현재로부터 얼마만한 거리에 있는 것이  
 전 관계없이 성립이 가능함을 보인다. 그러나, (27b)는 결코 온전한 표  
 현이라고 할 수 없다. 단절의 논리대로 한다면 10년 전 ‘내’가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의식이 10년간 단절되었다고 할 때 (27b)는  
 결코 기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7b)는 역시 기묘하다.  
 이는 의식의 단절이 가지는 時間幅이 그렇게 커서는 안 됨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3)</sup> 목격이나 관찰 이후 시간이 웬만큼 흐른 뒤에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의 종결에 이르는 것이 범상한 일이라고 할 때, (27b)  
 의 기묘성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事件에 대한 了解에 이르지 못함을 표  
 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奇妙性은 사회의 일반적  
 인 관념에 의한 것이지 바로 {더}의 논리는 아닌 것이다. {더}의 논리는  
 (27c)에서 성립한다. (27c)의 文脈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관찰과  
 그 시간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10  
 年間의 의식의 단절은 현재의 ‘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그’의  
 죽음 사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보다 큰 단위와 비교할 때 그 단  
 절의 폭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런  
 文脈이 주어지지 않은 (28a) 역시 기묘하다. 그러나, {더}에 대한 적합  
 한 文脈이 주어졌을 때는 성립한다. 다소는 기묘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13) 이는 柳東碩(1981:224)에서 “비교적 發話時에서 가까운 時點”이라고 표현  
 된 것이다.

는 기묘한 것이 아니다, {더}가 그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가 상정하는 의식의 단절은 일반적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나 이는 {더}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형절에 있어 이러한 時間幅은 관련 당사자의 인생의 범위 내에서 아무리 커도 좋은 것이다.

### C. 冠形節의 {더}

우선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한다.

- (29) a. 내가 먹던 밥을 남에게 주었다.  
 b. 내가 먹던 밥은 찰밥이었다.

관형절에 나타나는 {더} 쓰임의 양상은 平叙文에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29a, b)와 같이 관형절에서는 {더}가 自己制約의 행동 구성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人稱制約에 매이지 않는다는 큰 특징을 갖는다. 1인칭 주어 혹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冠形節에서 {더}가 작용하는 방식이 平叙文에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平叙文에서는 행동 자체에 의식의 단절이 작용함으로써 자기 행동과 자기 의식 사이의 乖離 현상이 빚어졌는데 반하여 冠形節에서는 이전의 행동과 표제명사가 문제되는 時點(이는 主節 事件時이거나 發活時이다)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介入하게 되는데, 피수식 대상을 매개로 하여 그 대상과 관련된 자기 행동을 떠올림으로써 자기 의식과의 단절을 성립시킨다. ‘\*내가 밥을 먹더라’에 있어선 하나의 사건에 대한 記述에 {더}가 나타난 것이지만 ‘내가 먹던 밥’에 있어선 다시 ‘밥’을 문제삼는 時點이介入하는 것이다.

둘째, 冠形節에 있어서 의식의 단절은 行動의 단절 곧 中斷을 수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29a, b)의 ‘밥’이 먹다 남은 밥을 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곧 의식의 단절이란 인식 양상이 세계의 어떤 사태와 결부되어 형성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文脈으로 보아서는 (29b)보다는 (29a)

에 中斷의 의미가 보다 잘 성립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어떤 예에 있어 서나 反復的인 行動의 斷絕이란 의미가 가능하다. (29a)가 ‘내’가 늘 먹던 밥을 주었다는 뜻을 갖는 경우가 그것이고, (29b)가 ‘내’가 늘 먹던 밥이 찰밥이었다는 뜻을 갖는 경우가 그것이다. 行動의 中斷이나 反復의 中斷이란 이 重義性은 어떤 動詞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다만 형용사에 대해서만 행동의 중단이란 의미가 제외된다.

(30) a. 전쟁터에서 죽던 병사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b. 역에 도착하던 기차가 탈선하였다.

c. 국경을 넘던 밀수꾼들이 잡혔다.

(31) a.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병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b. 늘 같은 역에 도착하던 기차가 탈선하였다.

c. 다른 때에는 말썽없이 국경을 넘던 밀수꾼들이 잡혔다.

(30) (31)의 ‘죽다, 도착하다, 국경을 넘다’는 이론 바 成就動詞 혹은 瞬間動詞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 자체의 相的 特性이 행동의 중단이나 반복의 중단 가운데, 어느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동사라도 (30)과 같이 행동의 중단(또는 斷面)을, 혹은 (31)과 같이 반복의 중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文脈이나 狀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더}의 단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행동의 단절이 아닐 경우에는 반복을 상정하여 그 단절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단절은 관형절에만 특이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의식의 단절이 작용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표제명사가 나타나는 그 구성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던’이 현재 상황과의 단절을 뜻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의 一端이 아닐 수 없다.

(32) a. ?\*어제 우리가 묵던 여관은 좋았다.

b. 여행 중 우리가 묵던 여관은 좋았다.

(33) a. 이 호텔에서 있던 파티는 즐거웠다.

b. 이 호텔에서 있은 파티는 즐거웠다.

(34) a. 가끔이 계속되던 가운데 단비가 내렸다.

- b. 십년 동안 알을 못 보던 장님이 눈을 뗐다.  
 (35) a. \*형이 돌아가던 뒤에 동생이 왔다.  
 b. 그가 나타난 것은 술잔이 한바탕 돌던가던 뒤였다.

(32a)는 一回的 事件이 完了된 것임에도 구불하고 ‘-던’이 쓰여 기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2b)는 기묘하지 않다. 예의 ‘목음’이 多回的인 것이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기는 하나, (32b)는 ‘우리’가 현재는 여행 중이 아니라는 뉴앙스를 갖는다. (32b)의 ‘여행 중’ 뒤에 ‘어느 날’이 있어도 文法性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데, 역시 ‘목음’이 多回的인 것이라 前提가 작용한다. {더}는 그 反復의 단절을 뜻하며 그 단절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33a)는 그 ‘파티’가 다시 열리지 않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33b)는 같은 ‘파티’가 다시 열릴 수도 있음을 말한다. (34a)는 ‘단비’가 ‘가뭄’ 상태의 단절을 가져왔음을 말하고 있고, (34b)는 ‘눈을 뜸’이 소경 상태의 단절을 가져왔음을 말하고 있다. 의식의 단절이 상황의 단절과 결부되는 양상을 보인다. (35a)는 一回的인 事件이 채 끝나기도 前인 그 완결의 ‘뒤’에 다른 사건이 이어짐을 나타내어 기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던’으로 쓰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형들이 돌아가던 뒤’와 같이 다회적·반사건의 단절이라면 성립 가능하다. (35b)의 성립성도 이것이다. 다회적 복적인 사건의 중단은 그만큼 현재 상황 혹은 그 뒤 상황과의 단절을 용이하게 하며 ‘뒤’의 의미도 성립시킨다고 할 것이다.<sup>14)</sup>

14) 이 밖에 ‘-던’이란 형식이 문제되는 것은 ‘-던데(註 5 참조), -던지, -던가’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이다. ‘-던지, -던가’의 ‘-던’은 {더}의 ‘-은’ 動名詞形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正書法上으로 ‘먹든 말든, 하든가 말든가’에서와 같이 ‘-든’으로 적히는 형식도 ‘-던’의 한 쓰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가 假想을 표현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법의 ‘할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예에서 ‘는’으로 적히는 형식도 ‘던’ 인지는 아주 불투명하다.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의 ‘래’도 {더}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진석(1971), 金次均(1981) 참조. 그 외에 ‘\*내일 가던 천수’의 奇妙性은 (安東煥 1980 참조) ‘체희표상으로는 내일 가던 천수’와 같이 ‘내일’이 문제되는 상황이 명시될 때는 생겨나지 않는

## D. 行動의 結果와 {더}

意識의 斷絕이 적용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다시 그 특이성을 보인다.

- (36) a. 어제는 형이 오더니 오늘은 동생이 왔다.  
b. 어제는 형이 왔더니 오늘은 동생이 왔다.
- (37) a. 내가 갔더니, 그들이 놀라더라.  
b. {\*네, ?\*그}가 갔더니, 그들이 놀라더라.
- (38) a. 내가 보았더니, 그가 옳다.  
b. \*내가 보더니, 그가 옳다.
- (39) a. 그가 물을 부었더니, 거품이 일더라.  
b. 동생이 밀었더니, 품짝도 않더라.

(36a, b)는 時間的인 行動의 罗列로서 {더}가 쓰인 양상은 平敘文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의식의 단절이 관찰시 이전과 이후에 이어지는 것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話者的 우연한 관찰이 그의 관심의 정도를 말해 주고 있다. (36a, b)와 같은 구성이나 의미 관련에서는 人稱制約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37) (38)과 같은 예에 이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一變한다. (37a)는 1인칭의 '-았더니' 구성이 가능함을 보이고, 더우기 (37b)는 그것이 2인칭 3인칭에 대해서는 기묘함을 드러낸다. 또 (38b)는 문제의 구성이 '-았더니'가 아니어서도 안 됨을 보인다. 人稱에 관한 한, 平敘文의 경우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37a, b) (38a)의 '-았더니'의 {더}가 단순히 관찰이나 목격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든가 그것이 명제 내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더}의 의식의 단절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그 斷絕이 명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차이가 아니다.

---

다. 관형절의 '-던'이 그만큼 行動이나 反復의 斷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것이다.

가령, (10a, b)의 성립성도 {더}가 행동 자체와는 관계없이 행동의 결과가 주변 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로부터 비롯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의 人稱制約이 펼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행동 자체와 그 예기치 못한 행동의 결과(主節의 명제 내용)와의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 놓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라고 할 수 있다.

(37a) (38a)에서 행동의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後行節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의 논리에 충실하다면 선행 행동에 있어서는 결코 예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37a) (38a)의 ‘-았더니’의 {더}는 이 의식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절과 후행절 관찰시 사이의 단절이다. 주절 관찰시에서 발화시까지의 의식의 단절은 (37a)의 주절에 있는 {더}가 표현하는 것이지, ‘-더니’ 條件節에 있는 {더}가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38a)에는 발화시까지의 단절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 {더}에 진체되는 의식의 단절이 통사적인 구성에 따라 그 限界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이는 장면이다. 그런데, 왜 (37)과 같이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성에 있어서는 (37b)와 같이 그 조건절에 2인칭이나 3인칭 주어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행동의 결과의 확인이란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다. 대체로 어떤 행동의 결과란 그 행동을 한 당사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37a)는 ‘내’가 가서 ‘그들’이 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37b)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그’가 가서 ‘그들’이 놀라는 것을 話者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37b)가 ‘그’에 대해서보다는 ‘너’에 대해서 더 기묘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가 바로 發話場面에 있는 聽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네가 갔더니’ 조차 제대로 성립시키지 못한다. (37b)를 ‘놀랐더라’와 같이 바꿀 때 그 奇妙性이 보다 덜해지는 것도 결과의 확인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다. ‘네가 떠났더니 내가 우울해지더라’가 성립하는 것, (39)

a, b) 가 成立性에 아무런 이상도 가지지 않는 것은 결과의 확인이란 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쉽게 확인되는 것이며, (39a, b)와 같이 같은 場面에서 같은 일을 할 때라면 남이 한 행동의 결과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8b)가 보이는 바와 같이 結果 確認 구성에 왜 ‘-았더니’만이 가능하고 ‘-더니’는 쓰이기 어려운가 하는 점도 같은 視角에서 설명될 수 있다. 행동의 결과는 행동의 중간단계에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자신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어떤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의 행동을 하나의 완결된 전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38a)가 가령 사태를 반쯤만 본 것이라고 하여도 ‘그가 웃다’는 결론에 이른 뒤에는 그 전체를 본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행동에 대한 관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유황을 봇더니 폭발이 일어났다’나 ‘그가 오더니 싸움이 일어났다’와 같이 반드시 ‘-았더니’란 형식이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 {더}와 假想

여기서 우리가 ‘假想’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보는 예들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 (40) a. 그가 오더라도, 나는 겁내지 않는다.  
b. 네가 갔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 (41) a. 그가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b. 그가 왔더면, 좋았을 것이다.  
c. \*그가 오더라도, 좋았을 것이다.  
d. \*그가 오더면, 좋았을 것이다.

(40a, b)는 흔히 讓步構成이라고 하는 것이며 (41a, b)는 흔히 어미 ‘-면’에 의하여 條件構成이 된다고 하는 것이나, 양보이든 조건이든 (40) (41)의 선행절에서는 假想의 의미가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

다. (40a, b)의 ‘-더라도’는 형태소 분석에서부터 많은 과학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가 와도’와 같은 형식, ‘네가 갔어도’와 같은 형식에 의해서도 양보의 뜻은 가능하므로 ‘-더라도’에서 ‘도’는 분석 가능하다. 다만, ‘-라도’를 ‘-아/어도’와 직접 대응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더}는 ‘-아/어’ 앞에 설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後稿로 미루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 (42) a. 그는 살아도 많이 살았다 (90세가 넘도록 살았으니까).  
 b. \*그는 살더라도 많이 살았다.  
 c. ?\*그는 살았더라도 많이 살았다.

(42a)는 ‘-아/어도’에 의한 양보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가능함을 보이는 반면 (42b, c)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더라도’에 의한 양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다. 이는 {더}에 의한 의식의 단절이 現實과 非現實 즉 假想의 세계와의 단절을 그만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0a)에서 ‘그’가 오는 것이 혹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 믿음을 드러낸다는 점에 ‘-더라도’에 의한 양보의 특성이 있다. ‘설령’이나 ‘만에 하나’와 같은, 蕎然性이 강한 수식을 (40a, b)에 첨가해 보아도 그 의미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 개연성이 희박하면 할수록 {더}가 상정하고 있는 관찰시와, 발화시 혹은 主節 事件時 사이의 간격은 관찰시 자체가 점점 현실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假想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40a)의 ‘그가 오는 것’이 미래의 일인 경우 관찰시는 그 가상의 시간 속에서 가상의 사건을 想定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그러한 상정과 주절이 문제삼고 있는 시간과의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 介在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간격이 만들어진다. (40a)의 ‘그가 오는 것’이 과거의 사실일 수도 있다. 누가 ‘그가 온다, 애 !’하고 傳言해 주었을 경우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때 관찰시는 傳言者의 전언 확인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도 {더}의 의식의 단절은 유효한데, 傳言者의 의식과 ‘내’ 의식의 단절이 그것이다.

(41a, b)와 같이 {더}가 反事實的인 假想의 條件에 쓰이는 것도 {더}에 의한 의식의 단절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41c, d)와 같은 예에 왜 {더}가 쓰일 수 없는지는 불투명하다. ‘-았더라면, -았더면’보다 (41c, d)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역시 추측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41b)와 같은 예가 있어 이것조차 不透明한 것이나 이들은 아마도 “\*더+고, \*더+지, \*더+아/어, \*더+음” 등과 같은 연결이 불가능한 것과 同軌의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더+을, \*더+으려, \*더+으려고, \*더+고자, \*더+도록, \*더+자마자, \*더+게”와 같은 연결의 缺如조차 不可解한 것은 아니다. 未來性이나 目的性 혹은 瞬間性과, 의식의 단절에 상정되는 過去性은 兩立이 不可能한 것이므로 이들은 설명가능한 결여인 것이다. {더}가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등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이에 의한다.

## V. 結論

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문제가 학제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先語末 형태 {더}가 가지는 性格의 微妙性이 학제의 예리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국어의 時制體系 전반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는 점에 있어 반가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이에 쏟은 情熱은 결코 적은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논의의 真摯性 또한 나무랄 데 없는 것이다. 多角的인 검토로 {더} 주변에는 언제나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더}라는 단 하나의 형태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토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近年에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의 정체는 항상 그 뒤에서 그

성격의 미묘성을 감추고 있었다.

{더}를 回想이라고 보는 지배적인 견해의 주변에 {더}를 報告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더}를 過去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며, {더}를 知覺이나 觀察 혹은 目擊이나 經驗 혹은 '새로 알게 된 것'과 관련시키는 견해도 있었다. 또 {더}에서 無責任性이나 信憑性이 낮음 혹은 不確實性을 추출해 낸 견해도 있었고, {더}를 단순히 過去의 基準時點을 정해 주는 형태로 보기로 하였다. 이 모든 성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더} 성격의 어느 일면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더}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그 성격의 미묘성이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견해로도 {더}가 보이는 인정제약 현상을 만족할 만하게 설명해 낼 수 없었다는 점에 그 동안의 {더} 논의가 가지는 限界와 弱點이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더}의 基本意味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根源的인 弱點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더}의 본질에 어느 정도 육박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모든 {더}의 쓰임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약점은 거의 둘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더}의 의미를 中斷이라고 본 견해들이 오랫동안 {더}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중시하고 冠形節에서의 쓰임에서 {더}가 中斷을 뚫하는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더} 논의도 성공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中斷의 의미는 위에 소개한 已往의 {더} 논의를 모두 다 합해도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默示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는 보다 직접적으로 中斷의 樣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暗示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를 觀察時와 發話時 사이의 意識의 斷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의식의 단절이란 동일사건에 대한 關心의 斷絕, 全體的인 了解의 缺如, 斷面 認識을 뚫하는 것으로 관심의 不連續이기도 하다. 관찰시 전에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의식의 단절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관찰시와 발화시 사이에 놓이는 의식의

단절의 反射的인 斷絕로 이해되었다. 이로써 '-았더라'가 아닌 '-더라'가 왜 過去進行을 나타내는 듯이 보이느냐가 분명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더} 구성에 나타나는 人稱制約이 透明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더}는 斷面 認識이고 自己 行動은 自己 意識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가 상정하는 觀察時와 發話時는 叙述의 典型的인 경우 즉 主節에 {더}가 쓰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冠形節에 {더}가 쓰일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관찰시와 표제명사가 문제되는 시각(그것은 發話時이기도 하고 主節 事件時이기도 하다) 사이에 의식의 단절이 介在하며 그것이 事件이나 反復의 中斷을 뜻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절의 논리에 따라 狀況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더}에는 본래적으로 사건의 어떠한 단절이든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條件이나 讓步 혹은 假想의 부사절에 {더}가 쓰일 때에도 의식의 단절은 문맥에 따라 發話時나 主節 事件時가 上限線이 된다. 특히 '-았더니' 구성에 있어 {더}는 명제 내용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의식의 단절이 적용된다. 假想의 경우는 觀察時가 현실의 時間帶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假想의 시간 즉 非現實에 놓인다는 특성도 있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더}를 意識의 斷絕이란 認識 樣相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고 {더}의 쓰임 一般을 包括的으로 說明하여 보았다. {더}와 副詞形 語尾와의 관계가 아직 未盡하고, 중세국어의 {더}를 다룰 겨를이 없었으나 {더}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이로써 일단락진다. 남은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參 考 文 獻

高永根(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김영희(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國語學 10.

- 金次均(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나진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南基心(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국어국문학 55~57합병호.
- 南基心(1978) 所牧.
- \_\_\_\_\_(1976), “關係冠形節의 相對 法,” 韓國語文論叢, 南基心(1978) 所牧.
- \_\_\_\_\_(1978),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 朴勝彬(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
- 朴亨達(1978), “機能的 觀點에서의 補助動詞 研究(下),” 언어학 3.
- 徐正洙(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언어 2:1.
- \_\_\_\_\_(1978), “‘(있)더니’에 관하여,” 눈뫼 허옹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_\_\_\_\_(1979), “{(있)던}에 관하여”, 徐炳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 孫昊政(1975), “Retrospection in Korean,” 語學研究 11:1.
- 申鉉淑(1980), “/-더라/의 쓰임과 의미,” 전국대학교 대학원 論文集 11.
- \_\_\_\_\_(1981), “관형형 어미의 의미분석,” 국어학회 제 8 회 공동연구회 ('81. 12. 12)에서의 발표.
- 安東煥(1980), *Semantics of Korean Tense Markers*, Georgetown大學院.
- 柳東碩(1981), “‘더’의 意味에 대한 管見,” 冠嶽語文研究 6.
- 李基東(1981), “A Tense-Aspect-Modality System in Korean,” 애산학 보 1.
- 李南淳(1981),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6.
- 李紹燮(1978), “相對時制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
- 李熙昇(1957), 새고등문법, 일조각.
- 任洪彬(1982), “動名詞 構成의 解釋方法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 張奭鎮(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語學研究 9:2 別卷.
- 鄭寅承(1956), 표준 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崔鉉培(1937), 우리말본, 延禧專門出版部.
- \_\_\_\_\_ (1959), 집고고침 우리말본, 正音社.
- 許 雄(1975), 우리옛말본, 쌈문화사.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 Press.
- Freed, A.F. (1979), *The Semantics of English Complementati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